

3.2.2. 빠지다<sub>4</sub>

빠지다<sub>4</sub>의 전형적인 쓰임새는 예문 (15)와 같은 문장이 보여 준다. (15)만을 관찰한다면, 빠지다<sub>4</sub>를 통상적으로 보어를 선택하지 않는 내재적인 자동사(의미상으로는 일항술어)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5) 유형의 예문에 의거하여, 빠지다<sub>4</sub>가 직관적으로 ‘공간상의 일정한 지점(또는 부위)에 고정된 대상의 그 지점으로부터의 분리·이탈운동’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 동사는 이항술어로 분석되며 이동의 기점 point initial으로 해석되는 제이 논항이 통사적 차원에서 보어로 실현되지 않는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6)의 예문들은 이러한 관찰이 부정확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동사를 통사적으로 특징짓는 단문인 최대구조는 (126)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26) N<sub>0</sub> N<sub>1</sub>-Loc 빠지다  
(Loc=-에서, -로)

(126)에 따르면, 빠지다<sub>4</sub>는 -러 보문과 양립이 불가능하고 N<sub>1</sub>-Loc를 보어로 선택하는 점에서 빠지다<sub>1</sub>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두 빠지다의 근친성을 보여주는 빠지다<sub>4</sub>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빠지다<sub>4</sub> 구문에서 N<sub>1</sub>의 장소보어적 성격은, 빠지다<sub>1</su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소명사/대명사 또는 데 관계절의 분포 및 어디 의문문 대응등의 속성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또 주어위치의 분포는 사물명사에 국한된다. 인물명사를 내포한 (17)ㄱ.의 이중주격 구문이 특이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복합명사구 주어의 (17)ㄴ.으로부터 재구조화에 의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빠지다<sub>1</sub>의 (5)ㄱ. 구문과 평행적이다.

그러나, 빠지다<sub>4</sub>는 그 의미해석에 있어서 대척적이라 할 만큼 빠지다<sub>1</sub>과 차이를 보인다. 더우기 보어 N<sub>1</sub>-Loc는 빠지다<sub>1</sub> 구문의 그것과는 다음과 같이 다른 행태를 갖는다.<sup>18)</sup>

빠지다<sub>4</sub> 구문에서는 -로 보어만 가능하고 -에 보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에서 보어가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맥락에 따라서 이들의 삭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15), (17), (18)의 문장에 사용된 빠지다<sub>4</sub>의 의미를 분석하자면, 기점으로 해석되는 제이논항(발바닥, 머리, 잇몸)을 상정하게 될 터이지만, (18)이 보여주듯이 그 통사적 실현은 전혀 자연스럽게 못하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약에 대하여 특히 (18)에 -에서 연쇄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은, 정보의 잉여성에 입각하여 적정명사구 삭제와 유사한 삭제의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여기에 대한 더 적절한 분석이 찾아질 때, (126)구조의 가정은 더욱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한편, 빠지다<sub>4</sub> 구문에 나타나는 -에서와 -로 연쇄는 각각 기점과 방향의 보어로 해석되

18) 빠지다<sub>4</sub>와 빠지다<sub>1</sub>은 모두 N<sub>1</sub>-로 보어를 허용하고, 동일한 사물명사(예컨대 곳, 나사, 나사못 등)의 주어분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16)ㄴ.은 중의적이다.

는데, 빠지다<sub>3</sub>의 구문에서와 유사하게 그 동시적 실현이 가능한 점도 지적해둘 만 하다.

(127)' 이 뜻이 어디서 이리로 빠졌지?

마지막으로 빠지다<sub>4</sub>를 빠지다<sub>1</sub>/빠지다<sub>3</sub>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빠지다<sub>4</sub> 구문이 사역적 의미를 지닌 타동사 빼다/뽑다 구문과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점이다.

(128) ㄱ. 철수는 발바닥에 박힌 (가시+사금파리)-를 겨우 (뺐다+뽑았다).

ㄴ. 이 나사못을 (빼라+뽑아라).

ㄷ. 영주는 어머니의 흰 머리를 뽑아 드렸다.

ㄹ. 오늘은 치과에서 이를 (뽑+빼)-기로 한 날이다.

이상의 논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료 (15)-(18)이 제시하는 빠지다 동사의 쓰임새를, 공간상의 대상의 운동을 나타내는 점에서 그것과 상관을 가질 수 있는 빠지다<sub>1</sub>이나 빠지다<sub>3</sub>의 사용과 명확히 구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3. 2. 3. 빠지다<sub>5</sub>

빠지다<sub>5</sub> 역시 하나의 보어만 선택하는 자동사이다. 보어의 형식적 표지는 -에이고, 보어 위치에는 명사 이외에 문장적 성격의 테 연쇄가 올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빠지다<sub>5</sub>가 실현되는 단문구조는 (129)로 표시된다.

(129) N<sub>0</sub> (N<sub>1</sub>+P 테)-에 빠지다

그런데 이 구문은 규칙적으로 부정 *négation*을 내포한 V<sub>mi</sub> (가다/나가다/오다/나오다...) 구문에 의한 환언 *paraphrase*이 가능하다.

(19)' 나는 오늘 (학교+강의+그 모임...)-에는 안 (가겠어+나가겠어)

(20) ㄱ'. 나는 술 마시러 가는 데에는 안 (갔다+따라갔다)

ㄴ'. 나는 이번에 정환이네 집에서 모이는 데에는 안 (가겠어+나가겠어).

따라서 빠지다<sub>5</sub>를 V<sub>mi</sub>로 분류하고 (129)에서의 (N<sub>1</sub>+P 테)-에 연쇄를 종점의 장소보어로 특징짓는 분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연쇄는 V<sub>mi</sub>의 장소보어와 몇 가지 평행적인 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가) 그것은 장소의 의문사 및 부정 대명사 어디 및 조음적 장소 대명사 거기와 대응된다.

(130) ㄱ. 기영이는 어디엘 빠지겠다고 그러니?

ㄴ. 윤환이는 술을 마신다면 어디에도 빠지려고 하지 않는다.

ㄷ. 나는 너무 피곤해 거기는 빠지겠어.

(나) -에를 삭제 할 수 있고, 한편 -에 뒤에 양태조사 -를을 자유로이 부착할 수 있다.

- (131) ㄱ. 너 오늘 (학교+강의+그 모임)- $\emptyset$  (빠지+가)-르거야?  
 ㄴ. 야니, 네가 그 모임에를 (빠지+가)-면 어떻게 해?

(다)  $N_1$  위치에는 (16), (21)의 자료에 나타난 학교, 강의, 모임, 회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열린 목록의 명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

- (132) 특강, 강습, 수업, 위원회, 이사회, 발표회, 집회, 시위, 농성...

이들 명사는  $V_{mt}$ 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19)' 이외에 (133)가 이 점을 보여준다.

- (133) ㄱ. 기영이는 오늘 오랫동안 (수업+집회+이사회...)에 나갔었다.  
 ㄴ. 영주는 오늘 (시위+농성+발표회...)에 안 나왔다.

(라) 빠지다<sub>5</sub> 구문의 보어는 (21)이 보이듯이 -에/-을의 변이가 가능하다. 따라서 (21) 유형의 문장은 -을의 지위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을을 대격 조사로서 목적어 표지로 분석한다면, (21)은 빠지다<sub>5</sub>의 타동사 용법을 예시하는 문장이고, 따라서 빠지다<sub>5</sub>는 -에/-을의 교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자·타 양용동사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sup>19)</sup> 그러나 우리는 빠지다<sub>5</sub> 구문의 -에/-을 교체를 다음과 같은  $V_{mt}$  구문에서의 현상과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 (134) 한국의 탐험대도 남극-(에+을) 갔었다.

(134)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택한다.

-을은 어떤 유형의 문장성분을 초점화시켜 그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가진, -는, -도, -만과 같은 계열의 특수조사이고, 남극을 연쇄는 남극에 연쇄에 이러한 강조사 -을이 첨가된 후(남극에를), 격조사 -에가 삭제된 것으로, 그 통사적 지위는 목적보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21) ㄱ.-ㄴ. 문장의 -을 연쇄의 성격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포한 이들 문장은 자동사 빠지다<sub>5</sub>의 용법으로 통합되고, 또 한편 빠지다<sub>5</sub>의  $V_{mt}$ 와의 접근도 더욱 가능한 것이다.

(마) 빠지다<sub>5</sub>와 양립이 가능한 P 데 연쇄는 위의 (20) ㄱ.'-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_{mt}$  구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바) 또 빠지다<sub>5</sub>는 능동적 해석의 인물명사만을 주어도 선택하는데,  $V_{mt}$ 와 유사하게 교통기관 명사주어를 허용하는 듯하다.

- (135) 신한운수 소속의 택시들만 여의도 광장에서 차람 시위를 벌이는 데에 빠졌다.

이러한 관찰들은 빠지다<sub>5</sub>와  $V_{mt}$  사이의 명백한 관련성을 증명해 주는 듯하며, 따라서 성

19) 다음의 타다는 이러한 성격의 동사이다.

ix) 기영이는 차-(에+를) 탔다. (홍재성 1987, pp. 65-78 참조)

급하게 빠지다<sub>5</sub>를 중점으로서의 이동을 부정하는 의미의 V<sub>mt</sub>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 동사는 형식적인 어휘 부류로서의 V<sub>mt</sub>로 한정될 수는 없다. (129) 구문은 V<sub>mt</sub>를 특징짓는 -러보문을 용인하지 않는다.

(136) ㄱ. \*기영이는 준서를 만나러 그 모임에 빠졌다.

ㄴ. \*연주는 기영에게 그 말을 전하러 친구들이 모이는 데에 빠졌다.

이와 같이 빠지다<sub>5</sub>는 V<sub>mt</sub>와의 깊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보문과의 양립불가능성으로해서 V<sub>mt</sub>부류에 귀속시킬 수 없는 자동사로 한정된다.

이제 빠지다<sub>5</sub> 구문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빠지다<sub>5</sub>와 V<sub>mt</sub> 두 구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중점의 장소보어와 유사성을 보이는 (N<sub>1</sub>+P 데)-에 보어의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연쇄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 관찰에 의하면 V<sub>mt</sub> 및 빠지다<sub>1</sub> 유형의 구문에 나타나는 중점의 장소보어와 흡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유형의 연쇄를 동일시하여 성급하게 그 성격을 단일화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빠지다<sub>5</sub>의 -에 연쇄가 다음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 N<sub>1</sub> 위치에는 가다/오다 등의 V<sub>mt</sub> 구문의 중점보어로 쓰이는 시장, 다방, 사무실, 집, 산, 바다 등 구체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장소명사가 올 수 없고 N-의 (앞+앞+아래+...) 유형의 복합적 공간 표현도 올 수 없다. 빠지다<sub>1</sub> 구문은 N<sub>1</sub>-에 보어는 바로 이러한 분포적 성격을 갖는 중점보어임을 이미 분명히 논구되었다.

(137) ㄱ. 나는 오늘 (시장+사무실+집...)-에 (\*빠지겠어+안 가겠어).

ㄴ. 철수는 그날 학교 앞에 (\*빠졌다+안 나왔다).

(아) N<sub>1</sub> 위치에 실현되는 명사는 (132)의 목록을 포함하여 학교, 강의, 모임 등의 부류이다. 이들 명사는 시장, 다방 등의 부류와는 명백한 대조를 이루므로 단순한 장소명사로 특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공통된 의미를 개략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체적인 장소에서의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빠지다<sub>5</sub>의 보어명사를 특징짓기 위해서, N<sub>1</sub>-에서 보어의 실현으로 한정되는 빠지다<sub>6</sub>의 경우를 잠시 앞당겨 살펴 보자.

빠지다<sub>6</sub>은, N<sub>1</sub>-에서 보어를 택하기는 하지만 인물주어만을 허용하고 N<sub>1</sub> 위치에는 (23)에서처럼 모임, 동아리, 비밀결사 등의 명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명사분포는 빠지다<sub>5</sub> 구문의 그것과 사이에, 의미상의 유사성뿐 아니라, 명백한 공통부분을 보여준다. 모임의 사용이 이 지적을 뒷받침해 주고, 또 (132)의 목록중에서 이사회나 위원회 등도 그러하다.

(138) ㄱ. 나는 오늘 이사회에는 빠지겠어.

ㄴ. 철수는 이사회에서 빠졌다.

나머지 명사들은 다음과 같이 빠지다<sub>5</sub>/빠지다<sub>6</sub> 구문에 대해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 (139) ㄱ. 나는 (학교+강의+수업+집회+...)-(에+\*에서) 빠지겠어.  
 ㄴ. 철수는 그 (동아리+비밀결사+단체+조직+...)-(\*에+에서) 빠졌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두 유형의 명사는 모두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데, 빠지다<sub>5</sub>의 보어로 선택되는 명사는 앞서의 지적대로 (ㄱ) ‘일정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반면에, 빠지다<sub>6</sub>의 보어명사는 (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구성을 의도하는 단체/조직으로서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한정할 수 있다. (ㄱ)/(ㄴ)의 구분은, 맥락에 따라 —주로 서술어(동사나 형용사)의 의미적 성격이나 한정 détermination의 성격등의 변수에 따라— 지시적 양상 modalités référentielles이 차이가 지는 두 가지 의미에 해당된다. 두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임이나 위원회는 (ㄱ)/(ㄴ)의 의미해석이 모두 가능한 다의어 polysème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임은 (140)의 문장들에서는 (ㄱ)의 의미로, (141)의 문장들에서는 (ㄴ)의 의미로 해석된다.

- (140) ㄱ. 오늘-(의+E) 모임은 12시에 있다.  
 ㄴ. 오늘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141) ㄱ. 우리는 한국어 서술명사 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다+구성하였다).  
 ㄴ. 영서는 그 모임에서 탈퇴했다.

마찬가지로 모임은 빠지다<sub>5</sub>의 (14) 문장에서는 (ㄱ)의 해석을, 빠지다<sub>6</sub>의 (23) 문장에서는 (ㄴ)의 해석을 받는다.<sup>21)</sup>

이렇게, 빠지다<sub>5</sub>의 보어 명사 분포를 한편으로 빠지다<sub>1</sub> 유형의 그것과, 또 한편으로 빠지다<sub>6</sub>의 그것과 구별하여, -에 연쇄의 성격을 한정할 수 있는데, 그 결과 드러나는 속성이 바로 빠지다<sub>5</sub> 구문의 흥미있는 특성을 이루는 것이다.

(자) 빠지다<sub>5</sub> 구문의 -에 연쇄의 속성을 검토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은 P 데 분포이다. 우리가 보기에 빠지다<sub>5</sub> 구문에 나타나는 P 데 연쇄의 통사·의미적 지위의 문제는 별도의 분석이 요구되는 흥미있고 까다로운 주제로 여겨진다. 이 자리에서는 그 두드러진

20)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장들에서 명사 책에 부여되는 여러 의미해석의 차이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여겨진다.

- x) ㄱ. 이 책은 어느 서점에나 있다.  
 ㄴ. 이 책은 길장이 찢어졌다.  
 ㄷ. 이 책은 대단히 재미 있다.  
 ㄹ. 기영이는 그 문제에 대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1) 다음과 같은 V<sub>mt</sub> 구문에서는 모임이 나간다의 해석에 따라 한 문장 내에서 두 가지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다.

- xi) 나도 그 모임에 나간다.  
 여기서 나간다가 일회적인 행동으로서 참석하다의 뜻이면, 모임은 (ㄱ)의 해석을, 지속적인 행동으로서 참여하다의 뜻이면 (ㄴ)의 해석을 받는다.

특이한 성격을 간단히 언급만 하겠다.

(20) ㄱ.-ㄴ. 이 내포한 문장적 성분 P 데는, 우선 앞에서 -에 보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적인 대로, 몇 가지 장소보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공간상의 구체적 이동을 표현하는 V<sub>mt</sub> 구문에서의 분포 [예문 (20) ㄱ'.-ㄴ'. 참조].

—어디 의문사 대응.

—-에/-를의 변이 [예문 (21) ㄴ. 참조]

또한 빠지다<sub>5</sub> 구문에서, 데와 유사한 장소의 형식명사 곳의 사용이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V<sub>mt</sub>와 빠지다<sub>1</sub> 구문에서는 데/곳의 변이가 자유롭다).

(142) ㄱ. '철수가 술 마시는 곳엘 빠질 리가 있나?

ㄴ. '철수는 영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빠지지 않는다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ㄱ.-ㄴ.의 P 데를 장소의 형식명사 데를 핵으로 하는 관계절로 분석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우선 이 구문에 실현되는 P 데 연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그 하나는 예문 (20) ㄴ.이 보여 준다. 이 문장을 (143)으로 바꿔쓰고 살펴 보자.

(143) 나는 이번에 정환이네 집에서 모이는 데에는 (빠지겠어+안 가겠어).

(143)의 데는 선행하는 문장의 장소보어를 대리하는 장소의 형식명사로 분석될 수 있을 듯도 하지만, 장소보어 정환이네 집에서의 명시적 출현으로 그와 같은 분석이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P 데 연쇄는 다음 예문에 나타나는 P 것 연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144) ㄱ. 영희는 철수가 영화관에서 나오는 것을 마주쳤다.

ㄴ. 기영이는 윤환이가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

ㄷ. 나는 영서가 자는 것을 괜히 깨웠다.

빠지다<sub>8</sub>의 용법을 보이는 예문 (38)에도 동일한 성격의 P 것 연쇄가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43)의 P 데 연쇄는 (144) ㄱ.-ㄴ.의 P 것 연쇄와 동일한 범주로 묶어 그 통사적 성격과 어휘적 분포 등의 문제를 자세히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 유형의 데 연쇄는 (20) ㄱ.이 예시한다. 이러한 P 데에는 (20) ㄴ.의 그것과 달리 장소보어의 명시적 실현은 없다. 그렇다고 쉽게 관계절 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문사 무엇에의 대응은 어려우나 빠지다<sub>5</sub> 구문(또는 동사 공헌하다/성공하다, 형용사 필요하다 등의 구문)을 특징짓는 데 보문과 근접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빠지다<sub>5</sub>의 P 데에는 시상제약이 있음을 지적해 두자. 문제의 연쇄내에서 동사는 미완료의 해석을 받는 -는 형 어미만 가능하다.

(145) ㄱ. 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 (마시는+\*마셨던)-데에는 빠졌었다.

ㄴ. 나는 내일 술 (마시는+\*마실)-테에는 빠질게.

테 관계절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작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위문의 서술어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절내의 시상제약은 관찰할 수 없다. 그것은 보문구조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146) ㄱ 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 (마셨던+마실) (테+꽃)-을 찾아 보았다.

ㄴ. 나는 친구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테+꽃)-을 찾아갔다.

우리는 이렇게 보어의 존재 및 그 형식적 특성(조사 -에의 배타적 사용), 주어(능동적 해석의 인물명사)와 보어(강의 등 일시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특정부류의 명사나 P 테 연쇄)의 분포적 속성, 그 외에 구조적 속성(-러 보문의 거부)등에 의거하여 빠지다<sub>5</sub>의 성격을 기술해 보았다.<sup>22)</sup> 우리는 빠지다<sub>5</sub>가 이 정도의 논의로 충분히 다른 빠지다와 구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을 일반화하고 또 구별되는 여러 빠지다 사이의 가능한 상관관계를 상정하거나 체계화하는 시각에서 보면 미진한 점이 남아 있다고 보겠다. 예컨대, 빠지다<sub>5</sub>는 -러 보문의 수용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면서 동시에 -에 보어를 선택하는 V<sub>mt</sub>와 의미상으로나 통사상으로 긴밀한 상관이 있음을 관찰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능한 상관의 양상에 대해서는 바로 더 깊이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sup>23)</sup>

### 3. 2. 4. 빠지다<sub>6</sub>

빠지다<sub>6</sub>은 앞서 빠지다<sub>5</sub>의 논의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듯이 다음의 단문구조로 정의된다.

(147) N<sub>0</sub> N<sub>1</sub>-에서 빠지다

N<sub>0</sub>는 인물명사의 배타적 분포를 갖고, N<sub>1</sub> 위치에는 이미 열거한 바와 같은 모임, 단체, 조직등 ‘지속적 구성의 의도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의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부류의 명

22) 빠지다<sub>5</sub> 구문에서 (N<sub>1</sub>+P 테)-에 보어는 삭제 가능하다. 우리는 (22)ㄱ.-ㄴ.의 문장을 보어가 생략된 빠지다<sub>5</sub> 구문의 하위구조로 분석한다.

23) 이러한 시각에서 다음의 사실들을 지적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빠지다<sub>5</sub>를 V<sub>mt</sub>와 구분시켜 주는 주요 속성으로 -러보문의 결합 불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나 실은 빠지다<sub>5</sub>구문과 환인관계를 이루는 부정의 V<sub>mt</sub> 구문에서도 -러 보문의 수용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지극히 의심스럽다.

ⅱ) ㄱ. 기영이는 그 모임에 (빠졌다+안 갔다).

ㄴ. 기영이는 준서를 만나러 그 모임에 (\*빠졌다+\*안 갔다).

ㄷ. 기영이는 준서를 만나러 그 모임에 갔다.

ⅲ) ㄱ. 영주는 친구들이 모이는 데에 (빠졌다+안 나갔다).

ㄴ. 영주는 기영이에게 그 말을 전하러 친구들이 모이는 데에 (\*빠졌다+\*안 나갔다).

ㄷ. 영주는 기영이에게 그 말을 전하러 친구들이 모이는 데에 나갔다.

따라서 -러문의 실현가능성여부가 빠지다<sub>5</sub>와 V<sub>mt</sub>를 대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듯하다.

빠지다<sub>5</sub>는 V<sub>mt</sub>로 한정되는 빠지다<sub>3</sub>과 마찬가지로 빠다/빠뜨리다와 전혀 대응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V<sub>mt</sub>부류의 동사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어휘적 사역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두자.

사가 온다. 그런데, 인물주어는 능동적/비능동적 두 가지 의미해석을 받을 수 있다. (23)의 문장에서는 능동적 해석이 우세하고, 다음은 이러한 해석만이 가능하다.

(148) ㄱ. 나는 이제부터 그 모임에서 (빠진다+빠지겠다).

ㄴ. 철수는 그 조직에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빠질 수가 있었다.

비능동적 해석은 (149)과 같이 중의적인 문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것은 (149)가 예컨대 제명등의 절차에 의해 자신의 희망이나 의사에 반하여, 철수가 회원이나 조직원의 신분을 잃게 된 과정이나 그 결과된 상태를 표상할 때의 의미에 해당한다. 또는 또 다른 과정에 의해 철수가 해당 모임의 회원이나 조직원의 신분을 얻지 못하게 된 사태, 그 모임이나 조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태를 표상한 경우도 의미한다.

(149) 철수는 그 (모임+조직)-에서 빠졌다.

이와 같은 해석이 빠지다를 능동적 해석의 빠지다<sub>6</sub>과 구분하여 빠지다<sub>6</sub>'라고 포기한다면, 이 빠지다<sub>6</sub>'은 빠지다<sub>7</sub>과 의미상 친근성을 보인다.

빠지다<sub>6</sub>은 빠지다<sub>6</sub>'과 대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

—빠지다<sub>6</sub>'은 주로 과거형 빠졌다로만 실현되고, 특히 현재형어미와의 양립이 어렵다.

빠지다<sub>6</sub>은 이러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예문 (148) ㄱ. 참조].

—빠지다<sub>6</sub> 구문은 기점의 장소보어  $N_1$ -에서를 선택하는 나가다/나오다/떠나다류의  $V_{m1}$  구문과 환원관계를 이룬다. 또 동사 탈퇴하다를 그 동의어로 지적할 수 있다.

(150) 철수는 그 (모임+동아리+조직)-에서 (나갔다+나왔다+떠났다+탈퇴했다).

따라서 빠지다<sub>6</sub>은 빠지다<sub>5</sub>의 경우와 평행적으로  $V_{m1}$ 구문과의 관계를 문제삼을 수 있겠다. 그러나 빠지다<sub>5</sub>가 그러하였듯이, 기본적으로 -러 보문을 거부하는 빠지다<sub>6</sub>을  $V_{m1}$ 로 분류할 수는 없다.

(151) ~기영이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러 사회주의 청년연맹에서 빠졌다.

또 -에서 보어 위치에는 구체적인 장소명사의 분포가 차단된다.

(152) 철수는 (집+사무실)-에서 (\*빠졌다+나갔다+나왔다+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다<sub>6</sub>에는 일부 명사에 대해 -에서 대신 -를의 사용이 가능한 듯하다.

(148) ㄴ'철수는 그 조직을 사정사정해서야 겨우 (빠질+탈퇴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속성은 바로 떠나다류의  $V_{m1}$  구문에서 관찰될 수 있다.



(153) 철수가 그 조직을 (떠나+나가+나오) 버린지는 꽤 오래 되었다.

$V_{mt}$  구문에서는 질과 같은 구체적 장소명사가 분포되면 독립계  $N$ -을 구성이 가능하다.

(154) 경희는 집을 (떠나+나가+나오)-ㄴ지가 꽤 오래되었다.

여기서 빠지다<sub>5</sub>의 ( $N_1+P$  데)-를 연쇄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바와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148) ㄴ'의  $N_1$ -를 연쇄를 목적보어로 분석할 것인가 또는  $N_1$ -에서 보어가 -를에 의해 양태화된 형태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경우에는 두 분석 사이에서의 선택을 유보한다. 근거있는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V_{mt}$  구문에서의  $N_1$ -에서/ $N_1$ -를의 교체현상을 좀더 깊이있게 분석해 보아야 하리라 여겨진다.

-빠지다<sub>6</sub>은 빠지다<sub>5</su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 23] 참조] 타동사 빠다/빠뜨리다와 대응이 없다. 빠지다<sub>6</sub>'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빠다 구문이 가능한 듯하다.

(155) 윤환이는 우리 모임에서 (빠어 버리자+빠는 것이 어떻겠니?)

이상과 같이 우리는 빠지다<sub>6</sub>의 용법을 개략적으로 특징지어 보았다. 그러나 빠지다<sub>6</sub>의 충분한 기술을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국면, 특히 빠지다<sub>6</sub>나 빠지다<sub>7</sub>, 그리고  $V_{mt}$ 와의 관계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

우리는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만 더 제시하고 빠지다<sub>6</sub>에 대한 논의를 끝낸다.

(156) ㄱ 그 조직에는 철수가 빠지면 안 되는데.

ㄴ. 우리 (지회+지부)-에 기영이가 빠졌다가는 일이 안 될걸.

(156) ㄱ.-ㄴ.의 문제는, 이 빠지다를 빠지다<sub>5</sub>, 빠지다<sub>6</sub>, 또는 빠지다<sub>7</sub> 중에서 어떤 유형의 빠지다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는 이 빠지다를 세 유형중 하나에 결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바로 우리의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분석 작업을 넘어서는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시도 역시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 3.2.5. 빠지다<sub>7</sub>

빠지다<sub>7</sub>과 빠지다<sub>8</sub>은, 앞서 논의한 여타의 빠지다에 비하면, 그 용법을 체계적으로 한정할 수 있기에는 불명료한 국면이 많아, 현 단계에서의 관찰과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그 가능한 구문을 특징짓기 어려울 듯하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속성만을 개략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빠지다<sub>7</sub>은 다른 빠지다와 마찬가지로 의미상으로는 이항술어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형적인 사용은 (24), (25)가 예시하고, 특정적인 단문구조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157)  $N_0$   $N_1$ -에서 빠지다.

이렇게 빠지다<sub>7</sub>은 통사적으로는 -에서가 뒤따르는 제 I 보어를 선택하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빠지다<sub>6</sub>과 공통성을 보인다. 그러나 빠지다<sub>7</sub>의 두 논항의 영역은 빠지다<sub>6</sub>의 경우와 전혀 상이하게 한정되고 따라서 그 의미해석이 다르다고 보겠다.

우선  $N_0$ 는 비능동적 해석의 사물주어만을 허용한다. (25)에서 인물명사 철수의 실현은, 빠지다<sub>1</sub>의 인물주어 경우와 똑같이, 철수의 이름으로부터 재구조화와 적정명사구 삭제 과정을 거친 결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에 의하면, 인물명사 주어의 분포가 정규화되고 철수의 환유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빠지다<sub>7</sub>의 제이논항의 영역은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24)-(30)의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한편으로 담화나 텍스트, 또 한편으로 이름과 같은 언어적 대상에서 구체적인 물건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사물의 지속적 또는 일시적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모임은 명단과 같이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그 의미를 어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통사적 실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예문 (30) ㄱ.-ㄴ. 또는 (157) ㄱ.-ㄴ.을 빠지다<sub>7</sub>의 용례로 보고자 한다.

(157) ㄱ. 빠진 물건이 없나 잘 살펴 보아라.

ㄴ. 연필이 한 자루 빠졌어.

그것은 이들 구문을 (157)구조에서  $N_1$ -에서 성분이 삭제된 하위구조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예문에서  $N_1$ -에서를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은 제이논항을 어휘화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닌가 한다.

예문 (26)은  $N_1$ -에서 보어가 -는이 부착되고 문두위치로 이동하여 주제화된 경우인데, 이때 (27)-(29)가 보이듯이 어떤 명사들에 대해서는  $N_1$ -에서 대신  $N_1$ -에 형태의 실현이 가능하다.  $N_1$ -에 형태의 보어는 -는과 함께 문두위치에만 가능하고, 문중의 표준위치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듯하다.

(27)' '19쪽이 이 책에 빠졌다.

(28)' '(윤환이-(의+E) 이름+윤환이)-는 이 명단에 빠졌다.

-에서/-에의 변이가  $N_2$ 의 명사분포에 따라 정말 제한적인지, 두 형태에 대응되는 의미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문중위치에서  $N_1$ -에의 실현은 왜 제약이 있는지 등등의 문제는 따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빠지다<sub>7</sub>은 빠지다<sub>2</sub>와 유사한 상aspect적 특이성을 보인다. 위의 (24)-(30) 예문들에서 모두 과거형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행동이나 과정에서 결과된 상태의 의미해석을 받

는다. 현재형의 사용은 제약이 있다.

- (24)' \*이 (책+논문)-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진다.  
 (26)' \*그의 (글+논의)-에서는 이 점이 빠진다.  
 (27)' \*이 책 -(에+E)-는 19쪽이 (빠진다+빠지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반복상을 나타내는 (158)이 가능하고, 또 과거사태를 현재화하여 표현하는 문체적 기법이 적용되는 특별한 담화적 맥락에서는 (159)도 가능하다.

- (158) 윤환이 -(의 이름+E)-은 숙정 대상자 명단에서 (번번이+매번+잘도) 빠지네.  
 (159) 윤환이 -(의 이름+E)-은 우여곡절끝에 결국 숙정대상자 명단에서 빠진다

또 빠지다<sub>2</sub>의 경우와 평행적으로, 빠지다<sub>7</sub>에는 (29)가 보이듯이 -어 있다가 적용될 수 있고 또 -어 있다 구문은 빠졌다 구문과 환언 관계를 이룬다. 단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어 있다 구문은 N<sub>1</sub>-에서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24)'' \*이 (책+논문)-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져 있다  
 (25)' \*윤환이 -(의 이름+E)-은 숙정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있다.

빠지다<sub>7</sub>은 한편 '부재'를 나타내는 없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보어로 N<sub>1</sub>-에를 택할 때 빠졌다 구문은 대체로 없다 구문과 대응시킬 수 있다.

- (160) ㄱ. 이번 숙정대상자 명단에는 (윤환이-(의+E)-이름+윤환이)-가 (빠졌네+없네).  
 ㄴ. 이-책(에+E)-는 19쪽이 (빠졌다+없다).

우리는 과거형 빠졌다가 어떤 행동이나 과정의 결과된 상태의 의미해석을 받는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그 상태는 바로 '부재'의 상태이다. 따라서 없다와 환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빠지다는 관념적으로 선행하는 행동이나 과정을 함의implication하는 점에서 없다와는 구별될 수 있을 듯하다. X가 Y에서 빠졌다<sub>7</sub>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Z)가 X를 Y에서 빼거나 빠뜨[트]린 것이다. 실제로 빠지다<sub>7</sub>은 타동사 빼다/빠뜨[트]리다 구문과 규칙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들 동사가 빠지다에 선행하는 행동이나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점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빠지다<sub>7</sub>의 중요한 속성이다.

- (161) 철수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이 (책+논문)-을 (뺐다+빠뜨[트]렸다).  
 (162) 정희는 (윤환이-(의+E) 이름+윤환이)-를 숙정 대상자 명단에서 (뺐다+빠뜨[트]렸다).

우리는 (161)-(162)에서 빼다/빠뜨[트]리다의 의미가 차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빼다는, 죽이다와 평행적으로, 사역의 복합표현 빠지게 하다에 대응되는 사역동사로 분석될 것이다. 빼다의 주어는 X가 빠졌다로 표상되는 사태의 유발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행위자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빠뜨[트]리다는 인물주어를 택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역할을 말하자면 경험자 experiencer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소극적 성격을 지닌다. 그 구문에는 빠다와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사 잘못해서, 실수로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빠다/빠뜨[트]리다 구문을 별도로 다루는 기회에 검토해 보기로 미루어 둔다. 현 단계에서 빠지다<sub>7</sub>의 의미는, 이 두 동사와의 대응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제외한 행동의 결과된 상태나 소극적인 부주의나 망각의 과정(?)으로부터 결과된 상태로서의 부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빠지다<sub>7</sub>은 이상과 같이 사물주어의 분포, -에서/-에의 교체를 보이는 보어의 존재, 빠다/빠뜨[트]리다와의 대응등의 속성을 갖는 자동사로 한정되어, 여타의 빠지다와 구분이 가능하다.

### 3.2.6. 빠지다<sub>8</sub>

빠지다<sub>8</sub>은 일견 (163) 유형의 자동사 구문에 투사되는 이항술어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163) N<sub>0</sub> N<sub>1</sub>-에 빠지다

이와 같이 가정하고, 사물주어 분포 및 N<sub>1</sub>의 장소명사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빠지다<sub>8</sub>을 빠지다<sub>1</sub>과 접근시킬 수 있을 듯하나, 사실은 통사·어휘적 속성이나 의미 해석이 매우 특이해서 두 빠지다는 대조시키는 것마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빠지다<sub>8</sub>과 양립하는 N<sub>1</sub>-에 보이는 항상 N<sub>0</sub>에 선행하여 출현한다.

(164) ㄱ. 공에 바람이 빠졌다.  
 ㄴ. \*바람이 공에 빠졌다.

N<sub>1</sub>-에 보어의 위치상 제약을 다음의 나다/술다 구문에서도 볼 수 있다.

(165) ㄱ. 손에 땀이 났다.  
 ㄴ. \*땀이 손에 났다.  
 (166) ㄱ. 칼끝에 녹이 슬었다.  
 ㄴ. 녹이 칼끝에 슬었다.

N<sub>1</sub>-에 연쇄의 이러한 순서제약은 빠지다<sub>8</sub>의 특성을 이룬다. 빠지다<sub>7</sub>을 제외하면 [예문 (27)'-(28)' 참조], N<sub>1</sub>-에를 선택하는 여타 빠지다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관찰할 수 없다.

N<sub>0</sub>는 사물주어로 특징지어 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은유 métaphore적 해석으로 가능할 듯하다.

(167) ㄱ. '대합실에 사람들이 이제야 다 빠졌구나!  
 ㄴ. '마지막 야당후보가 등단했을 때에는 유세장에 동원된 청중들이 다 빠져버린 뒤였다.

빠지다<sub>8</sub> 주어의 명사분포는 개방적 목록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게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특  
정화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N<sub>1</sub> 위치에 명사와 강한 개별적인 의미  
상 호응관계를 이루는 점이다. 다음의 자료는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해 준다.

(168) ㄱ. 방에 (냄새+\*바람)-가 다 빠졌다.

ㄴ. 마위에 (\*냄새+바람)-이 빠졌구나!

N<sub>0</sub>와 N<sub>1</sub> 사이의 의미관계는 실제로 N<sub>1</sub>-의 N<sub>0</sub> 구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31)-(35) 자  
료가 보이듯이 이 복합 구성이 주어위치에 실현되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게 긴밀하다. 따라  
서 빠지다<sub>8</sub>은 (169) 구문에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169) N<sub>1</sub>-의 N<sub>0</sub> 빠지다

위에서 인용한 나다/술다 구문은 (169) 유형의 구조가 불가능하다.

(170) ㄱ. \*손의 땀이 났다.

ㄴ. \*칼끝의 녹이 슬었다.

이와 같이 보면, 빠지다<sub>8</sub>은 통사적으로 (163) 구문과 (169) 구문 사이의 규칙적인 대응  
관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고 보겠다. 여기서 빠지다<sub>8</sub>을 이제까지의 여타 빠지다와의 구  
분을 명백히 해주는 통사적 특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N<sub>0</sub>, N<sub>1</sub>의 명사분포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므로, 빠지다<sub>8</sub> 구문의 사전적 기술을  
위해서는, 이들 명사를 빈틈없이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서 이들 명사를 몇 가지 작은 부류로 나누어 낱말이 지적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가 채택한  
분류는, 부류에 따른 한두 가지 특이한 속성의 차이를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깊은 근거는  
없는 잠정적인 예시일 뿐이다. 또한 빠지다<sub>8</sub> 구문은 N<sub>0</sub> 위치의 명사분포가 특이하게 제한  
적인 점에서 —특히 예문(34)의 맥이나 예문(43)의 무릎이 분포된 경우—, 속어동사구문의  
성격을 보이는 국면도 있으나 이 점은 빠지다의 관용구문을 문제삼을 때 살펴 보기로 한다.

이제 빠지다<sub>8</sub>이 N<sub>0</sub>/N<sub>1</sub> 위치의 명사분포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세세한 속  
성을 지적해 둔다.

—앞에서 제시된 (31)-(43) 자료에 의거할 때, N<sub>0</sub>가 맥이나 밀, 무릎인 경우를 제외하면,  
빠지다<sub>8</sub> 구문은, 조금씩 구체적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타동사 빼다 구문과 대응이  
가능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71) ㄱ. 방-(의+에+에서+을) 냄새를 더 빠야졌구나.

ㄴ. 오늘 너 너무 (기운+힘+\*맥)-을 빼는 것 같다.

ㄷ. 너는 아무래도 몸-(의+에+?에서+\*을) 살을 더 빼야겠다.

ㄹ. 특히 이 바지-(의+에+?에서+를) 때를 잘 빼주세요.

ㅁ. 주사를 맞던지 약을 먹던지 해서 부기를 빨리 빼야지.

—(31)-(34) 유형의 예문에서는,  $N_1$ -에 보어대신, 동일한 명사분포에 대하여  $N_1$ -에서 보어의 실현이 가능한데, 두 보어의 분포 조건이나 그에 따른 의미의 차이등에 문제는 좀더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빠지다. 구문의 주어위치는 복합명사구  $N_1$ -의  $N_0$ 의 분포가 정규적인데, 여기에 재구조화를 적용시켜, 앞의 자료가 폭넓게 보여주는 이중주격구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36) ㄱ.-ㄴ.은 살의 걱정 명사구가 삭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N_0$ 가 살인 경우는 세 개의  $N$ -이 연쇄를 내포한 삼중주격 구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문은, 주어명사구의 구성을  $N$ -의  $N$ -의  $N$ -으로 가정하고 재구조화 규칙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유도할 수 있고, 걱정 명사구 삭제도 연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172) ㄱ. '철수의 몸의 살이 많이 빠졌다.  
 ㄴ. 철수의 몸은 살이 많이 빠졌다.  
 ㄷ. 철수는 몸의 살이 많이 빠졌다.  
 ㄹ. 철수는 몸이 살이 많이 졌다빠.  
 ㅁ. 철수는 몸이  $\phi$  많이 빠졌다.  
 ㅂ. 철수는  $\phi$  살이 많이 빠졌다.  
 ㅅ. 철수는  $\phi$   $\phi$  많이 빠졌다.

—예문 (38)은 빠지다. 구문의  $N_0$  위치에 물, 얼룩, 때등과 같은 계열paradigme을 이루면서 특이한 P 것 연쇄가 올 수 있음을 보이는데, 이 P 것 연쇄의 성격에 대해서는, 빠지다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대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예문 (39)는 빠지다의 용례의 하나로 (37) ㄱ.-ㄴ.이나 (38)과 한데 묶일 수 있으나, 이때 문두 위치의 이 비누-(로+E)-는 연쇄는 빠지다. 구문을 특징짓는 보어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의 동사 구문에 분포가 가능한, 도구를 나타내는 비보어적 성격의 성분으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 (173) ㄱ. 이 칼-(로+E)-는 (코기가+E) 잘 안 썰어진다.  
 ㄴ. 이 펜-(으로+E)-는 (글씨가+E) 잘 안 써진다.

#### 4. 맺 는 말

이 글은 공시적 성격의 대규모 한국어 사전/한국어 동사구문 사전의 편찬을 위한 어휘자료 구축작업의 테두리 내에서, 동사 빠지다를 문제삼아 본 것이다. 우리는 우선 빠지다의

여러 쓰임새를, 다양한 용례와 함께 분류·정리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 한편, 우리가 고안한 동사용법 기술의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학적 논의의 일부로, 일반 자유구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빠지다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기능동사, 보조동사/형용사로 쓰이는 빠지다나 또한 다양한 유형의 관용구문을 이루는 빠지다와 대조되는 빠지다를 여덟 개의 동형어로 분할하는 시도를 하였다. 우리는 각 유형의 빠지다가 실현되는 특징적 단문구조를 한정하고, 또 각각의 빠지다 구문이 보이는 주요한 통사·어휘성 속성,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특성을 기술하고 동형어 분할의 타당성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어학적으로 근거있는 사전적 어휘기술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할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검토되었다고 여겨진다.

우리의 논의는 빠지다의 가능한 용법을 주로 어휘·통사적인 논거에 의거하여 구별하고 한정해 보는 데에 집중되었다. 우리에게서 물론 이 글의 후편에서 여타 유형의 빠지다—특히 기능동사와 숙어동사의 성격을 보이는 빠지다의 사용을 분석하고 기술해 볼 일이 남아 있으나, 이 글에서의 분석적인 작업의 연장으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묶어 분할·제시된 일반 자유문구의 여덟 개의 빠지다를 일반화된 시각에서 다시 체계화·조직화해 보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구별되는 빠지다 구문 사이의, 또는 각각의 빠지다 구문과 또 다른 유형의 동사구문 사이의 가능한 상관관계의 문제를 더욱 정밀하게 천착해 보는 것이다. 그것은 거시적 시각에서, 일반적인 설명적 기제에 입각한 체계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남겨 놓은, 불명료하고 미진한 세부적인 국면에 대한 정밀한 분석적 논의도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노운채, 1992. *Les constructions converses du coréen: Etude des prédicats nominaux*, 빠리 제 7 대학 박사학위 논문.
- 박형익, 1989. 주다 동사의 세 가지 용법. 한글 제203호.
- 정수영, 1991. 의미·텍스트 대응모형 속에서의 어휘기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선혜, 1990. 불어 기능동사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만규, 1993. *Restructuration de la complétive des verbes de cognition et des verbes de communication en français et en coréen: lexique-grammaire compar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재성, 1985. *Syntaxe des verbes de mouvement en corée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연구, 탑출판사.
- \_\_\_\_\_, 1989. '내려가다/내려오다'와 그 사전적 처리, 애산학보 제 7집, 애산학회.
- \_\_\_\_\_, 1990. 견디다 구문의 기술을 위하여, 한글 제208호.
- \_\_\_\_\_, 1991. 돌다 용법의 통사적 기술과 사전, 국어의 이해와 인식,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한국문화사.
- \_\_\_\_\_, 1992a. 한국어 관용 표현 연구의 한 시각, 제19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 \_\_\_\_\_, 1992b.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제 2권 제 4호.
- \_\_\_\_\_, 1993. 약속의 문법: 서술명사의 어휘·통사적 기술과 사전(인쇄중), 동방학지 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Giry-Schneider, J., 1987. *Les prédicats nominaux en français*. Genève: Droz.
- Gross, G., 1981. Lexicographie et grammaire, *Cahiers de lexicologie*. 39-II. Paris: Didier.
- \_\_\_\_\_, 1989. *Les constructions converses du français*. Genève: Droz.
- Chaurand, J., et F. Mazière, eds. 1990. *La définition*. Paris: Larousse.
- Gross, M., 1975. *Méthodes en syntaxe*, Hermann.
- Guillet, A. et Ch. Leclère., 1981. Restructuration du groupe nominal, *Langages* 63. Paris: Larousse.
- Harris, Z., 1965. Transformational Theory, *Language* 41:3.
- Mel'čuk, I. et al. 1984, 1988, 1993.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I, II, II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Ramos, M.A., 1991. Verbes supports et fonctions lexicales,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XV: 1.
- Zribi-Hertz, A., 1978. *Economisons-nous*: A propos d'une classe de formes réflexives métonymiques en français, *Langue Française* 39. Paris: Larousse.



## 《Résumé》

**Dictionnaire et syntaxe**—Pour une description lexicographique du verbe coréen: *ppacita* (I)—**Hong Chai-song**

L'objet de cette étude est de systématiser les emplois du verbe coréen: *ppacita* (tomber). Cette description constitue un fragment de l'analyse lexico-syntaxique du verbe, qui puisse servir de matériaux à la construction, soit d'un dictionnaire syntaxique des verbes coréens, soit d'un grand dictionnaire général du coréen.

Cette étude est effectuée d'autre part en vue de démontrer, avec un exemple concret, qu'il existe des liens fort étroits entre le travail lexicographique et des recherches syntaxiques, elle vise en particulier à faire valoir la nécessité de fonder la description lexicographique des entrées lexicales sur les résultats des recherches du type 'lexique-grammaire' de Gross ou du type 'DEC' de Mel'čuk.

Cette étude comprend deux parties: la première partie que nous présentons ici traite les emplois de *ppacita* en tant que verbe libre ordinaire; dans la deuxième partie, nous analyserons les autres aspects du verbe: emplois dans les constructions à verbe support et emplois dans les phrases figées. Dans le présent article, nous avons distingué huit emplois possibles de *ppacita*, qui se regroupent en deux catégories. Nous avons présenté et discuté notamment les principaux arguments linguistiques à dominante syntaxique qui permettraient ce type de systématisation des emplois de *ppacita*.